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과정에서 여성군인의 경험과 정체성 교섭 : 비판적 페미니즘적 접근

김용규¹, 강영구¹, 장익영^{2*}

¹대구대학교 체육학과, ²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²

The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 of Women Soldiers in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the CISM Military World Games : A Critical Feminism Approach

Kim, Yong Kyu¹, Kang, Yeong Gu¹, Chang, Ik Young^{2*}

¹Dept. of Physic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²Dept. of Community Sport,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여성군인의 경험과 상호교차적 환경에서의 정체성 교섭에 대해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눈덩이표집법에 의해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여성군인 3명을 선정했다. 자료수집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면담내용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다. 결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운동입문에서 군 입대 전, 군 입대, 군대 생활,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계기와 과정,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끝난 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스포츠와 군 사회는 성을 이분법적 담론으로 내재화하고 있었으며, 이런 양성불평등적 인식에 대해 여군들은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군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보수적이었으며, 제도적·사회문화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세계군인체육대회, 여성군인, 참가경험, 정체성 교섭, 내러티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and identity negotiation of women soldiers in the process of participating in the CISM military world games. To do this, we selected three women soldiers who participated in the CISM military world game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he data analyzed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The first are experiences from the athletic participa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The Second is about the enlistment in the Army. The Third is about the Army life. The Fourth World Soldier Athletic competition participated in the instrument and process. The fifth is about after the Games.

Key Words : Military World Games, Women Soldiers, Experience, Identity Negotiation, Narrative

1. 서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0년대를 전후하여 부상한 사회적 개념에서 젠더(gender)의 주류화

(mainstreaming)전략은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을 정착시키는데 공헌해 왔다.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 간의 사회적 관계로서 권력의 개념을 포함하며, 사회 전 영역에서 젠더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1]으로 제시되었다. 법제처[2]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2017 Dongil Culture and Scholarship Foundation.

*Corresponding Author : Chang, Ik Young(ikyongchang@knsu.ac.kr)

Received April 13, 2018

Revised May 10, 2018

Accepted June 20, 2018

Published June 28, 2018

등기본법'으로 명칭과 주요내용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이는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해왔다.

여성 정책의 활성화는 특수 영역으로 여겨 오던 남성 중심의 군대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쳐왔다[3]. 이러한 결과로 군대가 여성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되면서 각 군의 사관학교에 여성 생도들의 입학이 증가하게 되었고, 여성군인의 활동영역 역시 행정과 간호 업무에서 전투부대, 선봉 중대장, 수송차량 운전, KF-16 조종사 등으로 폭 넓게 확대되었다[4, 5]. 또한 여성들의 군대에 대한 문호는 정부의 여성인력 활용정책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6].

하지만 여성정책의 제도적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성평등 의식은 쉽게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은봉, 조성준, 김창희, 류지명[7]은 군대내의 제도적인 면에서의 여군의 양성 성장은 개선되어 왔지만, 남녀평등 의식은 양적 변화만큼 쉽게 변화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성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성 편견, 남녀평등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기인하며, 실제로 이해당사자인 여군들은 군대 내에서 여전히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유사한 측면에서 김원홍, 오정진, 문미경, 김혜영[8], 김태수[9], 손정민[10] 등은 여전히 군대 내에서 여성군인은 종속적이며 수동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먼저 전환 되어야 실질적인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양성불평등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연속시킨 남성 전제의 가부장제 문화로, 우리사회에 뿌리 깊게 내려져 왔던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7].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재)생산된 여성에 대한 편견은 군대라는 남성중심의 위계문화를 통해 더욱 강화되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군대의 조직문화는 남성성이 강조되는 군사주의의 시대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집약적인 군대의 특수한 문화 속에서 여성군인의 활동영역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군대는 전통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남성적 전사를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놓고 강한 군대와 강한 군인의 정체성을 내세워 왔다[11].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인식하는 여성은 여전히 신체적으로 나약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대의 남성중심적 문화는 스포츠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다. 스포츠는 남성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 아테네의 솔론(solon)헌법을 살펴보면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훌륭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으나, 훌륭한 시민이란 남성을 뜻하였으며, 여성이나 노예는 그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12]. 이와 같은 오랜 세월 동안 스포츠 문화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 제약 및 스포츠에서의 소외현상들을 이념적(ideological)으로 강화해 왔으며, 이러한 스포츠에서 양성불평등은 현대사회에서 남성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공헌해 왔다[12]. 즉, 남성들은 스포츠를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종속적이고 피지배적인 대상으로 낙인찍히면서 불평등을 당해왔다.

이에 대해 남성중심문화가 팽배한 군대와 스포츠라는 사회구조적 환경에 이중 노출된 여성들이 어떻게 군인으로서 스포츠선수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다른 경험을 하며, 동시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르게 교섭해 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양성불평등 현상이 여전히 팽배한 군대와 스포츠 환경에서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기초로 여성군인으로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느껴왔던 경험은 자신들의 정체성 교섭에 있어 남성군인이 갖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해석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으며, 그들의 경험과 정체성 교섭은 군대와 스포츠의 교차적 환경에서 페미니즘적 맥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군인이 군대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며, 무엇보다도 군대라는 환경에서 여성군인으로서 국제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체성 교섭은 여성군인의 스포츠경기 참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더불어 양성평등의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군대와 스포츠영역에서의 페미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이

용하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눈덩이표집방법은 연구대상이 되는 특정집단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 제보자의 목록을 만들어 가면서 그들로부터 또 다른 후보 제보자들의 명단을 얻어내는 방법이다[13]. 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이다. 연구참여자는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여성군인으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2015년에 개최된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육군 5종 종목으로 참가한 여성군인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이유는 육군 5종 종목이 육군들을 위한 군사종목이기 때문에 실제 군대사회의 경험과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의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정체성 교섭에 대해 여성군인의 독특한 삶의 이야기를 잘 수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정된 첫 번째 참여자 A는 평소 연구자와의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이로, 본 연구자가 직접 연락을 통해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하고자 연구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명으로 비밀유지를 한다는 보장 하에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참여자와의 상담을 통해 당시 함께 참가했던 여성군인 2명을 추가적으로 소개 받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과정에서 여성군인의 경험 그리고 정체성의 교섭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자료로 수집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자로부터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고, 쌍방향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개별화된 방법으로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14]. 그렇기 때문에 연구대상자의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으로부터 감정 상태와 경험 그리고 의식수준의 실증적 수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면담의 질문은 Patton[15]이 제시한 비구조화된 면담방식과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진행 방식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묻는 인터뷰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방법과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16, 17]. 자료수집 일정은 2017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먼저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2인과 선행연구 고찰 및 전문가회의를 통해 심층면담 지침을 제작하였고,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자가 쉬는 휴일을 이용하여 근처 조용한 장소(예; 커피숍)에서 진행하였다. 면담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연구대상자로부터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내용은 사전에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보장과 수집된 자료의 사용 용도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녹음된 면담내용은 빠짐없이 전사되었으며, 추가적인 자료 수집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전화를 이용해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다.

2.3 자료분석

연구자는 녹음된 진술내용을 텍스트로 전사하여 “여성군인으로서의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경험의 의미와 정체성 교섭의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본인 스스로에게 물으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자료의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17, 18]. 즉 이야기 안에 포함된 하나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의 현재, 과거, 미래의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하려 했다 [17].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Clandinin & Connelly[19]가 제시한 내러티브 분석방법을 기초로 참여자의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중요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방법과 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문화적 상황, 사회적 배경 등을 연결시켜 자료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합한 내러티브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2.4 자료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 자료의 진실성은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도를 나타낸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분석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회의, 구성원 검토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검토과정을 포함시켜 분석된 연구결과에 대해 재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에 대해 상이한 내용은 연구참여자와의 논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그리고 체육학 전공 박사 3인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하여 연구의 전 과정에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세계군인체육대회 여성군인의 경험 및 정체성 교섭

본 연구는 남성 중심의 위계문화가 짙은 군대와 스포츠 환경의 이중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이 군인으로서, 스포츠선수로서 어떤 경험을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교섭해 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군대와 스포츠라는 교차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군인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참가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정체성 교섭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정체성 교섭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러티브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심층면담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시기적 흐름에 따라 다섯 가지 국면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운동 입문에서 군 입대 전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군 입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군대 생활, 네 번째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 계기와 과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끝난 후의 이야기이다.

3.1 운동입문에서 군 입대 전: 남성성의 상징으로 써의 스포츠

연구참여자들은 유년시절부터 운동을 좋아했으며, 일반적으로 여자 아이들이 즐겨하는 고무줄놀이나 공깃돌놀이 보다는 신체적으로 활동이 많은 놀이나 운동을 좋아했다. 이들은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 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후 각 학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에서 우월한 신체능력을 보이게 되고, 체육선생님과 코치선생님으로부터 육상 선수로의 권유를 받게 된다.

그러나 참여자들이 스포츠 선수로 입문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은이, 여인성[21]은 성역할 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여성 자녀가 운동선수가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와 C의 어머니는 미술이나 음악학원에 다니길 바라며 여성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는 과거 가부장적 문화에 바탕을 둔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서 오는 성역할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가 운동선수를 한다는 것에는 ‘남자 같다’ 혹은 ‘여자가 무슨 운동을 하는가?’라는 인식, 즉 스포츠를 남자만의

전유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여잔데 너무 활동적이니까,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항상 정적인 활동을 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을 권유를 하고, 맨날 그런 곳만 보냈어요. 저는 맨날 피아노 학원 간다 하고 땀땀이치고, 친구 태권도장 가는데 가서 구경하고, 너무 활동적이니까 애가. 여자인데, 소위 말하는 섬 머스마? 너무 그런 게 엄마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결국 계속.. 엄마는 항상 반대하셨고,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자는 여자답게 커야 된다? 어머니가 좀 고지식하세요. 엄하시고, 더군다나 언니가 둘 있는데, 언니들은 상 여자예요. 정적인 것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고, 조용조용.. 조근 조근.. 예쁘게 생겼고, 저는 안 그러니까.. 위에 딸 둘을 키워냈는데, 애는 이상한 게 돌연변이니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자는 여자답게 커야 된다.

(A 면담 내용 중에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어머니는 당연히 하지 말라..(하하) (중략) 그..여성스럽게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태권도도 다니고 싶다 했는데, 안 된다고.. 중학교 때는 1학년 핸드볼부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핸드볼 해라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듣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제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핸드볼 하라는데 하면 안 되나 하나만 무슨 소리냐! 초등학교 때는 기억 안 나나 그러면서 핸드볼은 아예.. 선생님도 반대를 하셨고. 어머니도 반대를 하셔서 아예 생각도 안했었고 중학교 3학년 때도 배구를 해라 했는데 운동선수는 하지 말라 뭐 그러고..

(C 면담 내용 중에서)

이후 참여자들은 운동선수를 하고 싶은 열의로 부모님을 설득하여 육상선수로 입문하게 된다. 반면 C는 육상선수로 입문하긴 했으나, 동계훈련에 참여하던 중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시작하지 3개월 만에 선수생활을 포기하게 된다. 이 후 C는 운동선수가 아닌 보통의 여학생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중학교를 진학해서도 주변의 권유를 계속 받아, 부모님을 설득해 봤지만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다. 이는 부모님의 가부장적 가정문화의 기제로 인한 C의 젠더 형성의 왜곡됨을 보여주고 있다. 가부장제의 문제점은 남성이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여성은 사회적 역할이 통제되고, 억압되어져 왔다는 점[22]에서 성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는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에 노출되어져 여성성을 강요당해 왔다.

A와 B는 단거리 선수로 입문하여 시·도 규모에서 입상하는 등, 선수로서 자질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면서 감독으로부터 투척종목을 권유받게 된다. A는 투척경기에서 두각을 보여 투척선수로 전향해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며, 더욱 전문적인 엘리트 선수로 한층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B는 축구선수로 전향하게 되는데, 전향한 이유에는 투척경기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인기종목으로 떠올랐던 축구로 관심을 돌렸다고 한다.

선수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후 이들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벽,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성된 훈련프로그램과 하계·동계합숙훈련 생활을 매년 소화하게 되는데, 실내보다 야외에서 활동을 주로 하다 보니 구릿빛 피부 그리고 치마보다는 트레이닝복이나 바지를 선호하게 되고, 긴 머리 스타일보다는 남성처럼 짧은 커트 머리 스타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일반 여학생과 다른 외형적 모습을 갖게 되는 등, 정체성에 대한 이질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스포츠의 남성 우월적 패러다임에서의 타의적 환경에 의한 '남성다움'이 강제되고 있음으로 해석된다.

남들이랑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도 뭐 짧은 커트머리였어서. 남들 그러니까 일반 여성 이런 애들보다는 와일드한 면도 많았었고. 내가 일반 여자들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많이 활발하고, '튀는 구나'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었어요.(중략) 그러니까 남들 고무줄하고 그럴 때 저는 뽀빠질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치마를 입으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안 입기도 했고, 그냥 불편하고, 활동성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입어야겠다, 입고 싶다 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입기 싫어서. 교복이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입었었는데, 여자애들처럼 화장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했었거든요.

(B 면담 내용 중에서)

Young[23]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인위적으로 형성된 전통적 성역할 태도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제약과 이로 인한 스포츠의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아 운동선수로서 여성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연약한 존재', 혹은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 스스로 강인해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써 남성성을 강화시키거나, 지도자로부터 남성성을 강제 당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음 참여자 A와 B의 면담내용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언급되었다.

고등학교 때 머리를 저렇게(군인 헤어스타일)막 밀고 그랬어요. 경기에서 성적을 못 내면 머리를 밀어야 되니까.. 야! 너네 가서 머리 밀고 와! (중략)그 때 당시에는 학교 선생님의 헤어스타일에 따라서도 학생들의 머리가 좌지우지 되었어요. 저희랑 라이벌 학교에 감독님은 말머리를 좋아해서 개네들은 다 말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때는 강요하고 압박주고 이런 것이 문제된 것도 아니고.

(B 면담 내용 중에서)

당시에는 억지로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감독선생님이 단백질 보충제도 많이 사주고, 위(키)로는 다 컸으니까 옆으로. 근육을 조금 많이. 살집이 있는 근육을 좀 많이 해가지고, 거의 70kg 까지 쪼우게 만들었죠.

(A 면담 내용 중에서)

이후 참여자들은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과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신들의 직업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된다. B는 축구선수로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실업팀까지 순탄하게 진출하게 되지만 여자축구선수로의 진로안정성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축구가 인기종목이긴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남성'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A는 매번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실적과 부상 등으로 선수로서의 '성공'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끼게 된다. 결국 선수생활을 포기하게 되고, 더 나은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자신의 특성을 반영해 체육계열학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이후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며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취업을 했으나,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으로서 안정된 직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될 나이인데, 그냥 일반 실업팀에서 축구를 하면 여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뭐 하고 나면 선수생활이 수명이 짧아지니 기껏 해봐야 감독이나 코치 요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다 계약적이다 보니까. 간단간당한 직업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은 것도 아니고.

(B 면담 내용 중에서)

일반적으로 여자운동선수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은 체조, 골프, 피겨스케이팅 등으로, 이러한 종목들 또한 특정 선수의 활약으로 인한 인지도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여성은 스포츠와 체육 분야에서 과거에 비해 비교적 지위와 권리가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여성선수들은 여러 스포츠영역에서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4]. A와 B도 이러한 구조의 틀 안에서 여성으로서 스포츠 영역의 진로의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C는 진로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체활동을 즐겨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계열이나 군인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후 자신의 진로분야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군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기 위해 시험에 응시했지만 낙방하게 된다. 그러던 중 TV에서 방영되는 여성 부사관과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부사관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고, 군사학과로 진학하여 군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게 된다.

3.2 군 입대: 남성중심 군대사회에서의 여성군인의 정체성

A와 C는 군인이 되기 위해 부사관을 지원하였으며, B는 축구실업팀에서 FA(Free Agent)기간에 상무 팀에 지원을 해 입단테스트를 거쳐 군 입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참여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직업군인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군대사회는 전통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남성적 전사를 핵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놓고 강한 군대와 강한 군인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조직체이다[11, 25, 26]. 따라서 남성의 신체적 우월성이 강한 군인임을 상징하는 반면, 여성성은 약함으로 간주하고 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27,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군인이 되고자 함은 이들이 살아온 배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유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남성성이 강조되는 스포츠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 및 선수생활의 경험을 통해 군기와 유사한 행동 양식이 일반 여성과는 다른 독특한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기제로 인해 정체성의 교섭 경험이 남성성이 강조되는 군 입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대생활을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어렸을 때부터 군기가 잡힌 엘리트체육을 하다 보니깐 윗사람도 섬길 줄 아는 방법도 갖쳤고, 예의 바른 행동들도 몸에 이미

배웠고 아침 점오, 저녁 점오까지 기숙사에서 다하고 단체생활하고 같이 자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배다 보니깐 대학교 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똑같이 적용이 된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선배지만 어쨌든 학번으로 선배니깐 당연히 예의 바르게 하는 게 맞고 그런 게 이제 주위에서 애는 되게 잘 생활하는 애, 생활하는 후배, 그런 게 있다 보니깐 이미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군대가 너 체질이다 할 만큼.

(A 면담 내용 중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보면 힘들겠다라는 생각보다 나도 저렇게 훈련받고 싶다. 군인이 저런 것을 하는구나. 나도 하고 싶다는 것 때문에 네. 아무래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TV에 되게 멋있는 것이 나오잖아요. 행군하고, (레펠) 뛰어내려오고,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

(C 면담 내용 중에서)

이후 군 입대를 한 참여자들은 하사가 되기 위해 각종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군인들은 혹독한 전투훈련과 정신교육을 받게 되고, 여성군인도 예외 없이 남성군인과 동일한 훈련을 받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강한 군인을 지향하기 위해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을 하게 된다.

여군들은 훈육관이라고 있는데 여군 훈육관이 중·상사 계급으로 그 때 당시에 많이 강조했었던 것은 그런 거죠. ‘네가 그렇게 해서 야영 가서 똑바로 할 수 있겠어?’ 모든 이제 여군들 여군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야전가면 이렇고 이래. 군대 가면 너네 임관하고 나서 부대 가면 이렇게 해서 병사들 지휘할 수 있겠어? 너네는 여자가 아니야. 군인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힘들죠. 하루 종일 훈련 받고 이러면. 울기도 울고 그런 것 보면 이제 계속 훈육관들이 얘기를 하죠. ‘너네는 여자가 아니야. 군인을 하려고 여기 들어 온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죠.

(A 면담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죠. ‘너네는 여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약간 강하게 키우려고. 훈육관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를 강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교관님들이 이렇게, 여군후보생들이 있을 때, 너희는 군인이다라는 것을 많이..

(C 면담 내용 중에서)

위의 면담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이라는 정

체성은 신체적으로 나약한 존재라고 인식 있으며, 이는 상명하복과 같은 군조직의 권위주의적 위계구조라는 특성[29, 30]에 의해 남성 외의 성을 지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인식[31]함을 강제 받는 것이다. 또한 위의 사례에 대해서 같은 경험을 한 B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여성의 존재는 나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여성군인이 연약한 존재가 아닌 남군과 똑같은 ‘군인’으로서의 인식으로 전환되어지고자 한다.

여군이다, 남군이다 차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예 생각 자체가 뭐, 우리(여군)도 동일하게 군인이니까인데, 여군이 그런 말(“너희는 여자가 아니야”)을 꺼내는 순간부터가 약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이고 그냥하지, 그런 것을 굳이 내세워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B 면담 내용 중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스포츠영역의 남성중심의 문화, 그리고 군대 조직의 남성 군 문화에서 남성성을 지닌 이차적 정체성을 교섭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정체성이 신체적으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편,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남성군인에 비해 열등한 체력이나 경력을 계발해 군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여성군인 또한 군인으로서 인정받길 원하며, 남성성을 모방하거나 획득하려는 전략적 측면의 젠더전략이 아닌 젠더 그 자체로서 군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군 입대 이후 이러한 맥락적 흐름에서 여성군인은 군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교섭하게 된다.

3.3 군대 생활: 군대사회에서의 정체성 교섭 “군인”

참여자들은 입관 이후 여성성과 남성성이 이중적으로 교섭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성에 대한 정체성의 교섭 경험을 통해 군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남성 중심의 조직 내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참여자들에게 군 생활을 함께 있어 부정적인 요소가 다소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A생활관 점호를 하고 있는데, B생활관에서 웃고 떠드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싹 다 들고 왔는데, 제가 느끼기에 는 여군이어서. 그런 약간 느꼈어요. 그래서 ‘아..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B 면담 내용 중에서)

알보는 거죠. 여자니깐. 여자간부니까. 좀 예쁘게 생기거나 화장, 막 향수 냄새나고 화장품 마스크라하면 여자로 보는 거예요. 이러면 병사들 지휘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A 면담 내용 중에서)

이러한 성 차별적 인식은 훈련 등과 같은 직무환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야전훈련 참여 시에도 간이 화장실과 텐트 설치 등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야전훈련 시 열외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병영 내에서 소수의 여군들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제도적 보호망인 관심과 배려가 오히려 양성 모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인식[3]을 주며, 여성군인의 역량에 대해 과소평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훈련을 가도 자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 같은 공간도 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훈련을 잘 안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일단 사고 우려도 있고, 그것을 계속 권유했죠. 그때는.

(C 면담 내용 중에서)

군인인데 사실상 무거운 짐을 들거나 이럴 때는 뭐 ‘그것도 못 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아직까지도 여군이 소수이다 보니까 여군을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나면 여군들 먼저 지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야전훈련 나갔을 때, 연대장님이 여군들도 내보내서 훈련을 시키라고 해서 나갔는데,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짐이 되기 싫어서 괜찮다고 그냥 노상에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래도 너네는 어쨌든 여군이니까 만들어 주겠다.’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위에서는 사건사고가 터지면 일이 커지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B 면담 내용 중에서)

참여자들은 이러한 사례경험을 통해 회피하거나 갈등론적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신체적 열등함을 인정하고, 이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여 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강인한 군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으며, A와 B는 레인지 훈련을 자원해 여군 최초로 훈련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여군도 강한 군인이다!’라는 것들? 여자라고 해서 해내지 못할 것은 없다. 물론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는 ‘여군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레인저 때도 생리적인 측면에서 남군하고 준할 수는 없어요. 여군이. 그런데 ‘여군이 저런 것도 해?’ 이런 여군의 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인식들이 바뀌었으면 하는.

(A 면담 내용 중에서)

제가 여군 레인저 2호거든요? 저는 이제 자력을 쌓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도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올해 받고 왔거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ROK 막 붙이고 있는데, A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 공수 패치에 레인저 패치까지 붙이고 있으면 병사들이 딱 봤을 때, 알잡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군이지만 강한 군인의 모습을 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B 면담 내용 중에서)

여군 간부의 양성평등 인식에 대한 홍창국[3]의 연구결과와 같이 여군은 젠더 자체로서 군 정체성을 확립 적극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능력 개발로서의 양성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로 참여자들에게는 우연치 않은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맞이하게 된다.

3.4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계기와 과정: 남성중심

의 이중적 환경에서 여성군인의 정체성 교섭

국내에서는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크게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규모 면에서는 올림픽(206개 회원국), 유니버시아드(167개 회원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2015년 문경에서 개최된 세계군인체육대회는 117개국 7,045명의 군인들이 참가한 올림픽 대회이다[32]. 특히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일반적인 스포츠종목과 군사종목(육·해·공 5종 경기, 오리엔티어링, 고공강하)을 포함하고 있어 각 나라 군인선수들의 전투력을 국방력에 비추어 은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을 획득해 국위선양 하는 것이 목표이듯이 참여자들 또한 참가 당시, 참여자들의 출전 계기는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과거 스포츠 선수로서 이루지 못했던 국가대표로의 활약이나 메달획득을 통한 국위선양이었다. 하지만 2년 6개월간의 훈련을 받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가지게 된다. 즉, 남성중심의 이중적 환

경(스포츠와 군대)에 노출되면서 자신의 목표달성을 통해 남성군인과 동등한 젠더구조가 확립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여성으로서 평등이 아니라, 젠더화 된 ‘여성군인’으로 인정받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엘리트 체육에서 성공을 못해본 것.. 1등이다! 아..막 빛을 받하더라란 뜻이라고 해야 되나. 금메달의 환향 이런 것들을 기지개를 커다가 말아가지고. 국가대표를 하는 것이 엘리트 체육을 할 때도 꿈이었는데, ‘군사종목이 있는데 해볼래? 선발되면 군 국가대표를 태극기 달고 할 수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참가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면서 여자군인으로서 뭔가를 해내고 싶다 라는 것이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A 면담 내용 중에서)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대회니까, 참가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었죠. 그래서 엄청 열심히 훈련했고, 코치, 선수용사들하고 으쌰으쌰해서 힘들어도 참고 막 하고 그랬는데, 언제 적 부턴가 약간 그런.. 여자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훈련했던 것 같아요.

(C 면담 내용 중에서)

정말 군인들만 나갈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군사종목이라고 하면 딱 진짜 군인들만 나갈 수 있는 경기이다 보니까. 내가 군인신분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여기서 내가 메달을 따게 되면 국위선양을 했다는 희열도 느낄 것이고, 어쨌든 축구만 하다가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을 도전을 해서 한다 라는 자체가 저한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B 면담 내용 중에서)

참여자들은 육군5종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며,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군인체육대회에 ‘한국 여군 최초 메달 획득’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해 여성군인으로서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얻은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했다. 참여자들은 남성 중심의 이중적 환경에 노출되어져, 남성성을 강제 받아왔으며, 이를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해 젠더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재된 의식이 군 생활에서 존재해 왔다. 이에 대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한 보상심리로써 여군의 젠더 인식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자부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군인신분에 이런 시험을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메달도 땀이니

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라고까지 이야기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린 것이고, 말 그대로 최초니까. 방송 자막에 여군최초라는 것을 봤을 때, 저는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몽클하고 그랬죠.

(B 면담 내용 중에서)

그냥 엄청난.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지? 솔직히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주변에서 한국 최초로 여군이 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 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와 닿았어요.

(C 면담 내용 중에서)

제가 군 생활을 긍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지, 고난이 찾아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군이 필요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다들 보면. '여군을 왜 저렇게 많이 증력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군이 메달을 땀다라는 것은 여군이 어느 정도 국위선양을 하고, 일조하고, 보탬이 되는구나. 그래서 군 생활 할 때도 제가 여군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해요.

(A 면담 내용 중에서)

조금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남자만 군대 가면 되고, 남자만 뭐 하면 되고, 하면 되지.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해? 이런 여자들도 많잖아요. 사회에. 열에 한명이라도 제가 이런 일을 해냄으로써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면 그 영향력이 끼치길 바래요. 사회에도..

(B 면담 내용 중에서)

면담내용을 보면, 참여자들은 여성과 남성을 이분화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남성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군대 사회구조에서 여성군인의 편견에 대한 인식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김엘리[6]의 연구에서처럼 여성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적 인식은 자신의 유능함을 통하여 해소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이 믿음은 여군들의 자기 긍정성에서도 기인하지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군인정신과 결합하여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한다는 맥락과 유사한 점을 보여준다.

3.5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끝난 후

참여자들은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끝난 후 자신의 부대

로 복귀하게 되는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의환향했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보상에 아쉬움이 있었다. 세계 규모의 스포츠 대회였지만 희망부대 진출 이외에 다른 보상은 없었다고 한다. 이어 참여자들은 여군 위상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2년 6개월 전과 다를 바 없었음을 느꼈다.

세계군인체육대회 때문에 여군의 인식이 바뀐 것은 없어요. 그냥 운동했던 군인? 그런 부분들은 안타까웠어요.

(C 면담 내용 중에서)

인정을 해주지는 않아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위선양을 했는데 막상 군대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군인신분에서 군인들만 나갈 수 있는 시험에서 메달을 땀데도 인정을 못 받고, '그게 뭐가 대단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조금 많이 속상하죠.

(B 면담 내용 중에서)

위의 면담내용들처럼 군 조직은 여전히 남성중심 사회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소수의 집단인 여군의 입지는 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인을 표상하는 남성 지배적 영역에서 여군의 젠더 확립은 사실상 일시적으로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군 조직 내에 여군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군의 제도적 측면과 인식 전환, 나아가서 양성평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세계군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여성군인의 경험과 정체성 교섭에는 스포츠와 군대의 이중적 사회문화영역이 교차된다. 즉, 이 두 가지 영역에서의 사회문화인식은 여성과 남성을 이분화하고 있으며, 편향된 젠더의식을 구조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남성 중심의 위계문화가 짙은 군대와 스포츠 환경의 이중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군인이 어떻게 군인으로서, 스포츠선수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다른 경험을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교섭해 나가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교차적 환경(군대

와 스포츠)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군인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참가하는 과정에서 느낀 경험과 정체성 교섭에 대해 알아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통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여성이 스포츠 문화를 접하고, 군인으로서 군대의 문화영역 그리고 세계군인체육대회 참가하며 느꼈던 경험에는 각각의 환경에서 요구되는 정체성 즉, 남성성이 중심됨에 따라 참여자는 이에 대해 자신의 정체성을 교섭해왔다. 이러한 정체성 교섭을 통해 참여자는 여성으로 부정적 인식 또는 편견에서 강인한 군인이 되기 위해 더욱 강한 남성성을 모방하는 듯 했으나, 스포츠와 군인사회가 갖는 남성과 여성을 가르는 이분법적 담론을 내재화 하고 있으며, 이런 사회문화적 인식 속에서 자신의 능력개발을 통해 진정한 군인이 되기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젠더 구조를 확립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성의 우월적 성향이 짙은 군대조직 속에서 여군 개인의 능력개발과 노력만으로 올바른 젠더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성 군인의 올바른 젠더구조의 확립을 위해서는 여성을 신체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게 만드는 사회문화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Scott, Joan. (1989). De constructing Equality-Versus-Difference: Or, the Uses of Post structuralist Theory for Feminism. *Feminist Studies*, 14, 35-50.
- [2]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4). *Gender Equality Basic Law*. MOLEG(Online). <http://www.moleg.go.kr>
- [3] C. G. Hong. (2014). The Phenomenological Analysis of Gender Equality Perception of Women Junior Officers in the Army.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ce Policy Studies*, 30(3), 199-226.
- [4] Defense Media Agency. (2005). *Strong Soldier Age: Go Ahead with Female Soldiers*. DMA(Online). <http://www.dema.mil.kr>
- [5] Newsmagazine 2580. (2010). Tarantula Warrior. MBC(Online). <http://www.imbc.com>
- [6] E. Kim. (2012). *Emergence of Women Soldiers and Gender Disturbance: A Case Study of Women Officers' Strategies to Become Soldier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7] E. B. Sin, S. G. Cho, C. G. Kim & J. M. Rue. (2004). Research on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f the Military Personnel.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2, 1-29.
- [8] W. H. Kim. (2003). *Research on the Institutional·Psychological·Normative Gender Equality Levels Experienced by the Military*. Seoul : KWDI.
- [9] T. S. Kim. (2008). *The Impacts of Woman Soldiers' Increase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ROK Navy*. Doctoral dissertation. Kyungnam University, Gyeongnam.
- [10] J. M. Son. (2012). *The Effects of Army Women Soldiers' Recognition about Women-friendly Policies on Job Satisfaction: Moderating Effect of Service Forms*. Master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4). *Defense White Paper 2014*. Seoul : MND.
- [12] Y. S. Won & H. J. Chung. (1999). Feminism and Women's Sport.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13(2), 223-237.
- [13] Y. S. Kim. (2002).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SPSS WIN Statistic Analysis*. (3rd ed.). Seoul: NNP.
- [14] J. J. Ro. (199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eisure Attitude through In-depth-Interview.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35(4), 4465-4479.
- [15] M. Q. Patton.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16] Savin-Baden, M & Niekerk, L. (2007). Narrative inquiry: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31(3), 459-472.
- [17] G. U. Yu, J. W. Jeong, Y. S. Kim & H. B. Kim. (2012).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Y.
- [18] D. Ezzy.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19] D. Clandinin & F. Connelly. (2007). *Narrative Inquiry*. K. H. So & H. S. Kang(Eds.). Paju: KYB. (The original publication of the year 2004).
- [20] N. K. Denzin & Y. S. Lincoln.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21] E. Y. Noh & I. S. Yeo. (1998). The study of Women's Recognition of Sport according to the Gender Role Attitude.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37(3), 21-31.
- [22] V. Krane, P. Y. Choi, L. Baird, S. M. Aymar, C. M & K. J. Kauer. (2004). Living the paradox: Female athletes

- negotiate femininity and masculinity. *Sex Roles*, 50(5/6), 315-329.
- [23] K. Young. (1997). Women, sport and physicality. *Journal of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32, 297-305.
- [24] J. K. Park. (1999). Relationships between Sex Role Identities and Social Acceptance of Women in Sport. *Journal of Korean Social Sport*, 11, 95-108.
- [25] Dunivin, Karen O. (1994). Military Culture: Change and Continuity. *Journal of Armed Forces & Society*, 20, 531-547.
- [26] M. F. Katzenstein & J. Reppy. (1999). *Beyond Zero Tolerance: Discrimination in Military Culture*.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27] Y. J. Lee. (2005). The Military Experience and the Formation of the Male Subject in Korea. *Journal of Human and Social*, 29(3), 81-108.
- [28] Elshtain, J. B. (1987). *Women and War*. NY: Basic Books.
- [29] T. H. Park. (2003). Women's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Bias of Men in Public Culture. *Journal of Korean Administrative Society & Autumn Conference*, 10, 1-20.
- [30] S. O. Jo, T. H. Lee, U. Y. Jo & U. J. Jeong. (2010). Military Ethics. Seoul: JM.
- [31] J. B. Allen & S. Shaw. (2009). Women coaches' perceptions of their sport organizations' social environment: Supporting coaches' psychological needs? *Sport Psychologist*, 23(3), 346-366.
- [32] J. H. Yu. (2015). SPORT IT Life Sports: CISM Military World Games, We are game played many things, nicely.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33, 57-65.

김 용 규(Kim, Yong Kyu) [정회원]



- 1998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 2001년 8월 :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체육교육학석사)
- 2007년 2월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심리학, 스포츠문화
- E-Mail : kim9886@daegu.ac.kr

강 영 구(Kang, Yeong Gu) [정회원]



- 2010년 2월 : 경운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 2013년 1월 :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7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이학박사)
- 관심분야 : 생활체육, 스포츠심리학
- E-Mail : ekflal09@hanmail.net

장 의 영(Chang, Ik Young) [정회원]



- 2000년 2월 : 한국체대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사)
- 2002년 8월 : 한국체대 대학원 체육학과(체육학석사)
- 2009년 11월 : 레이크헤드대학교 체육학과(이학석사)
- 2014년 5월 : 오타고대학교 체육학과(철학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이주학, 문화연구, 스포츠사회학
- E-Mail : ikyoungchang@knsu.ac.kr